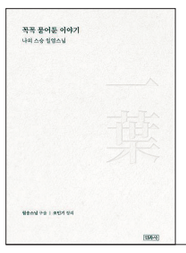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5~10/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2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그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3	해탈장엄론(고귀한가르침의여의주)	감뽀빠/진우기	운주사	8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10	구루빠드마쌈바와기원문(연꽃에서화생한불사의화신불)	중암선혜 역저	금빛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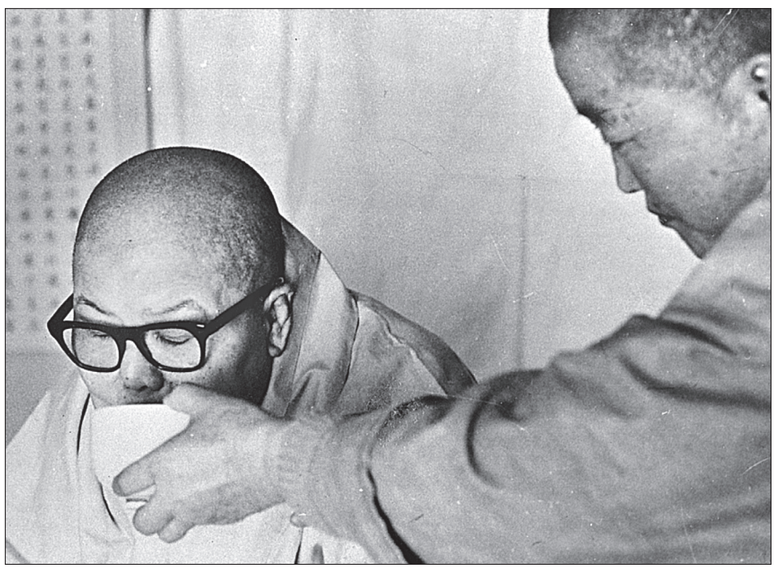
책세상

‘신여성 1세대’에서 한 시대의 선지식으로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구술 · 월송 스님, 정리 · 조민기
민족사 / 1만8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일엽 스님을 시봉하는 경희 스님.

근대한국불교 비구니 선지식 일엽 조명
한국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등
신여성 1세대 · 문인 · 여성해방운동가로
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많은 주목 받아
목사의 딸, 만공 스님 법문 듣고 출가해
견성암 비구니 총림 선원 설립 대작불사
30년 동안 오직 견성암 ‘입승’ 소임만



베스트셀러 〈청춘을 불사르고〉 출간 뒤 일엽 스님의 모습.

일엽 선사(1896~1971), 근대 한국 불교사에서 비구니 선지식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름이다. ‘견성암 비구니 총림 선원 설립’이라는 역사적인 불사를 이뤄냈으며, 그의 입적은 최초의 비구니장으로 엄수됐다.

스님의 일대기가 출간됐다. 책 〈꼭꼭 묻어둔 이야기〉는 일엽 스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던 손상좌 월송 스님의 기억을 받아 적은 것으로, 일엽 스님의 출가자로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가 전의 이야기도 농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엽’이라는 이름은 스님이 출가하기 전부터 그의 속명 앞에 이미 붙어 있던 이름(필명)이었으며, 그 이름은 어려웠던 시대를 누구보다 어렵게 지나간 이름이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며, 많은 것들로부터 뒤로 물러나 있어야 했던 시대에서 그는 그런 시대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책의 초반부, 즉 출가 전인 김원주의 이야기에서는 ‘연애’ ‘결혼’ ‘사랑’ ‘이혼’ ‘신여성’ ‘스캔들’ 등 스님의 일대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책을 모두 읽고 나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듯 하기도 하다. 그것은 ‘출가자 일엽’을 오롯이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김원주는 남다른 길을 걸었다. 빼어난 감수성과 문학적 재능을 갖춘 그녀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20년 귀국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잡지 〈신여자〉를 창간한다. ‘신여성 1세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문인으로, 여성해방운동가로 활약했다. 젊은 날의 김원주는 가십과 루머, 스캔들을 몰고 다니며 감탄과 비난의 주인공이었다. 특히 이혼과 〈신여자〉의 폐간 이후 자유연애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목사의 딸이었던 김원주는 만공 스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면서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만공 스님의 법문을 들은 김원주는 처음으로 정신이 해방되는 자유를 느꼈다. 비로소 삶의 의문이 풀리고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됐다. 녹야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초전법륜을 만난 다섯 수행자의 기쁨과 비견될 만한, 온 천지가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세상을 마침내 만난 것이다. 만공 스님의 감로법은 사자후가 되어 김원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삶과 정신의 의지처로 삼았다. 또한 일생일대의 가르침을 주고, 불연과 발심을 이끌어 준 만공 스님과의 인연은 출가로 이어진다.

일엽이라는 필명은 그때부터 다른 가계, 불가(佛家)의 이름이 된다. 김원주를 출가자 ‘일엽’으로 이끌어 준 이는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백성욱 박사다. 김원주는 백성욱 박사와 이별 후 재혼과 이혼을 거쳐 마침내 출가한다. 만공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수덕사에서 세간의 인연을 끊어낸다. 만공 스님은 김원주를 일엽으로 받아들였고, 전법게를 내렸다. “일엽이 백련처럼 성품이 바뀐 후에 세상에 나서라”

오랜 세월, 글로 세상과 소통했던 일엽 스님은 스승의 뜻에 따라 주저 없이 절필하고 승가 안에서 아무런 소임 없이 출가자로서의 길만을 걸었다. 일엽 스님이 30년 동안 놓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 견성암의 ‘입승’이었다.

만공 스님의 열반 15주년이 되던 1961년, 일엽 스님은 스승을 기리는 글을 썼다. 그로부터 다시 14년 후, 일엽 스님은 손상좌 월송 스님과 함께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던 원고들을 정리했다. 그 원고들은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 〈청춘을 불사르고〉(1962),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4)로 출간됐다. 오랫동안 세간에서 잊힌 일엽 스님의 글이 발표되자 세간에서는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그리고 잊힌 줄 알았던 많은 스캔들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노스님 큰일 났어요! 웬 남자가 노스님을 빙자하고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스님의 사생아라고 하며 책을 팔고 다닙니다. 이 노릇을 어쩌면 좋아요.”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손상좌들을 본 일엽 스님은 말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김일엽이라는 이름 석 자가 뭐라고? 그 이름이 대체 뭐길래? 그 이름 가치가 얼마나 된다더냐? 나를 빙자하여 한 사람이 이 힘든 생을 버티고 한 남자가 장사하고 돈을 벌어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구제한 것이 아니냐?”

일엽 스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은 이미 ‘시비(是非)’를 여읜 경계에 있었다. 세간에서 치열하게 살았듯 출세간에서도 역시 본분에 철저했다.

일엽 스님이 입적하자 온갖 소문들이 무성했다. 소문의 대부분은 스님 생전에 불티나게 팔렸던 가짜 자서전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었다. 묵묵히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월송 스님과 환희대 문중은 소문이 아니라 꼭꼭 묻어두었던 일엽 스님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소문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 일엽 스님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책 〈꼭꼭 묻어둔 이야기〉는 일엽 스님의 손상좌 월송 스님이 들려준 일엽 스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세간이 아닌 출세간에서 바라본, 손상좌 월송 스님의 시선에서 시작된, 수행자 일엽 스님에 대한 책이다. 소문과 가십의 주인공이며 시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시대와 자신의 넓은 간극을 어떻게 견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인연을 바꾼 후 치열하게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이어간 한 시대의 선지식을 그린 이야기다. 꼭꼭 묻혀있던 이야기다.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一葉

1세대 신여성 김일엽.
최초 동아일보 여성 기자,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그리고 자유연애.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최초 비구니 선사가 된 일엽스님.

승복을 입고 다닌 동국대 최초의 비구니인 월송스님이 밝히는 일엽스님의 비화.
세간의 오해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스승에 대한 소문 속 진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꼭꼭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다.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